

“서른살의 너흰 어땠을까...” 사무치는 그리움과 눈물

세월호 참사 12주기

진도 조도면 참사 해역서 선상추모식
목념·희생자 호명·추도사 낭독·헌화
목포 신항 선체 앞에선 기억식 진행
“진상규명·참사 재발 방지” 한목소리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16일 유가족들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다시 한 번 슬픔을 나누며 안전 사회 구축을 염원했다. /조영권·서형우 기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16일 유가족들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다시 한 번 슬픔을 나누며 안전 사회 구축을 염원했다.

◇**아수난 바다...수심송이 흰 국화꽃 '넘실'**
이날 오전 6시께 목포 해경부두. 안산에서 꼭 두세백미터 달려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목포해경의 경비함에 타 가족을 떠나보낸 '아수난 바다'로 향했다.

사랑하는 이들을 삼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해역이 가까워질수록 유가족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이윽고 출발 약 3시간 30분 만인 오전 10시께 세월호가 침몰한 위치를 나타내는 부표 인근에 도착하자 경비함에선 4·16재단과 해양수산부 주최·주관으로 선상 추모식이 엄수됐다. 유가족과 4·16재단 관계자 등 7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목념하는 동안 손을 맞잡은 몇몇은 서로를 달래줬고 어깨를 펴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대표로 추도문을 낭독한 김병권 0416재단 고가족협의회 고문은 “12년이 아니라 억만년의 계절

이 지나도 너희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며 “훗날 이 슬픔이 다 씻겨 내려갈 그날에 꼭 다시 만나자”고 붉은 눈시울로 말했다.

이후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이었던 고(故) 이호진군의 아버지인 이용기 0416재단 고가족협의회 간사는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유가족 중 일부는 자녀의 이름을 듣고선 가슴을 내리치거나 닭뿔 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부표 주변의 바다에 흰 국화꽃을 던지며 희생자들 모두가 평온하길 소원했다.

이용기 간사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면 올해 서른이다. 성인이 된 모습은 어땠을지를 떠올려 보면 늘 마음이 아프다”며 “역대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던 세월호 참사 전후로 우리 사회는

과연 달라졌는가에 대해 어른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읊소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선상 추모식은 3천급 경비함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1천500급이 사용되면서 4·16 재단 관계자 일부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체 앞 기억식엔 또 다른 참사 가족도**

오후 3시부터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 주최로 기억식이 진행됐다. 유가족 등 300여명의 참석자 중에는 '10·29 이태원 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도 다수였다.

이들은 인양된 후 약 9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녹이 군데군데 쓴 세월호 선체 앞에 모여 함께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고 서로를 위로하며 슬픔을 나눴다.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었다는 이종민씨는 “세월호가 잠긴 바다와 이태원 골목에 함께 묻는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냐”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유에 대한 답을 들 때까지 우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숙·백은경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공동대표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는 한 우리에게 4월은 잔인한 계절일 뿐”이라며 “이와 함께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서도 민주광장 등서 추모 행사**

추모 행사는 광주 곳곳에서도 이어졌다. 오후 12시 30분께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 촛불행동의 주최로 열린 기억식은 목념으로 시작해서 추모

사와 시 낭송, '기억나무' 리본 달기가 진행됐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기억식은 참석자 30여명이 함께 “세월호 참사,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를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북구 주민 김모(30대)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계속 돌아보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변화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 7시께 5·18민주광장에서 '세월호참사 12주기 광주기억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광주시민상 주모임 소속 회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추진위원회가 준비한 이날 문화제의 주제는 ‘울음을 멈추게 하라’였으며 학생·화제가이파크 봉과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서형우·윤찬용 기자

‘16만명 투약분’ 필로폰 5kg 밀수 라오스인 재판대에

광주세관, 검찰·국정원 등 공조

최근 구속송치...도주 1명 추적

국내에 16만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들여온 라오스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라오스 국적 외국

인 A(30대)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과자와 초콜릿, 커피 등에 소분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5kg을 국내에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광주세관의 설명이다. 앞서 광주세관은 국정원과 검찰로부터 태국 현지에서 국내로 발송예정인 특수화물 속에 필로폰이 은닉돼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지검·광주

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 공조해 실제 필로폰이 들어있는 화물을 특정, 잠복과 통제 배달을 이어갔고 A씨가 택배를 수령한 순간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직장생활 중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같은 국적외국인 B(30대)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세관은 해외로 도주한 B씨를 추적 중이다. /안재영 기자

‘살인’ 20대女 외국인 반성문 70여건...항소심서 ‘감형’

연인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인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라오스 국

적외국인 A(2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영암군 소재 자택에서 같은 국적외국인 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

소됐다. 1심 형량에 대해 A씨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열린 항소심에서 그는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A씨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했던 반성문은 단 두 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9월 11일 1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약 7개월 동안 70여건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영 기자

“학교’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예비후보

세월호 12주기 ‘목포기억식’ 참석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16일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김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안전은 배움의 길을 여는 시작이자,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세월호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등학교 알림서비스 도입 ▲지능형 학교 안전 출입관리 시스템 강화 ▲현장체험학습 안전책임 지원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권역별 교권보호위원회 센터’ 설립과

‘밀착지원형 법률전문가 제도’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사안을 다루는 전담 지원체계를 전면화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갈등 대응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길은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위협에서도 국가와 교육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며 “학생의 안전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욱 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